

Garden 소품 만들기

방 광 자

상명대학교 환경조경학과 교수

실내정원의 조성

고대 이집트에서부터 그리스, 로마, 르네상스에 이르기까지 사람이 생활공간에 식물을 가까이하려는 것은 나무나 숲에 대한 상징적인 설화나 정서를 그대로 간직해온 유럽인들에게는 자연스러운 본능이었으며 이를 현실적으로 구현시킬 수 있는 온실을 소유한 것은 부의 상징이기도하고 부유한 소수 계층의 고상한 취미의 상징이기도 했다. 근대적인 실내정원이 최초로 도입된 것은 1851년에 열린 런던의 대박람회를 위하여 조셉 팩스턴이 계획, 설계한 수정궁에서이다. 수정궁은 세계최초의 대형유리건물로 거대한 내부용적과 무제한한 광선의 유입의 실내정원의 새 지평을 예고하였다.



그림 1. 1851년 조셉팩스턴에 의해 설계된 수정궁의 당시모습

우리나라의 경우 1980년 정원형의 실내정원공간이 교보빌딩에 조성되면서 직장인들뿐만 아니라 일반시민들에게도 실내정원공간의 새로운 접근방법으로 각광받기 시작하였다. 그 후 꾸준히 직장인들과 회사의 이미지 고취를 위해서 실내정원공간이 조성되었는데 대부분 20층 이상의 고층빌딩에 조성되고 있다.



사진 1. FORD BUIL. USA.

이와 같이 건축학·형태미학·디자인적인 접근으로 실내정원은 실내에 다른 장식물이나 예술품을 대치하는 경우가 많았고 또 이용자의 실내환경의 인식도 식물의 도입으로 인해 개선되는 계기가 되었다. 현재까지 많은 실내정원작품들이 실내공간에서 건물의 이미지를 상승시키며 식물고유의 환경조절기능을 수행해내고 있다.

산업발달로 인한 인구의 도시집중화, 생활환경의 악화 그리고 실내공간에서의 체류 시간 증가는 실내공간에 자연의 푸르름을 도입하고자하는 본능적인 욕구가 발생

하게 되었다. 이러한 녹지의 확보를 통하여 실내환경의 질적인 향상에 관심을 기울이게 되었으며 우리의 생활공간 전반에서 발생하는 환경문제에 대한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실내정원에 대한 관심과 도입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최근 선진국에서는 건축물로 인해 발생하는 에너지 및 환경부하를 최소화한다는 차원에서 건축물이 지구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객관적인 정보를 소비자들에게 제공하고, 환경친화적인 건축물을 확대보급하기 위한 목적으로 여러가지 형태의 친환경적 인증프로그램¹⁾을 마련하여 실행

1) 친환경적 인증프로그램이란 건축물의 자체생산, 설계, 건설, 유지관리, 폐기 등 전 과정을 대상으로 에너지 및 자원의 절약, 오염물질 배출감소, 쾌적성, 주변환경과의 조화 등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평가를 통해 건축물의 환경성능을 인증함으로써 친환경건축물의 건설을 유도, 촉진하기 위한 자발적인 프로그램이다. 이와 같은 인증프로그램을 통해 소비자는 건축물의 선택 시 환경성능에 정보를 취득할 수 있게 된다. 2002년 이후 우리나라에도 친환경건축물(그린빌딩)인증제도가 정부차원에서 도입되어 시행에 들어갔다.



사진 2. 울산 L.백화점 정글플라자

하고 있다(2002.6, 조동우, 실내정원협회지, 친환경건축물 인증제도 및 평가기준). 쾌적한 실내환경의 조성을 위해 실내에 녹지를 도입할 경우 공동주택, 업무용건축물, 주거복합건축물에 따라 각각 2점, 3점, 4점의 배점을 부여하고 있다. 이제 실내정원은 실내공간의 미적 증진과 함께 환경조절자적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발전해 나아갈 것이다.

가정집에서 실내에 화분을 들여놓음으로서 시작된 실내정원은 이제 거주자에게 쾌적성의 제공과 함께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한 부분으로서 그 역할을 인정받게 된 것이다.

■ 실내정원의 효과

인간 삶의 질에 대한 관심의 증대와 환경에 대한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악화된 실내환경의 개선책으로서 실내정원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즉 실내정원은 실내의 심미적 장소 제공과 함께 거주자의 정서적, 신체적 회복의 장, 그리고 실내 공기정화와 온습도 조절 등의 환경조절자적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실내환경을 개선한다. 이러한 실내정원의 효과는 이미 선행된 여러 연구들을 통하여 그 효과가 입증되었다. 보다 구체적인 실내정원의 효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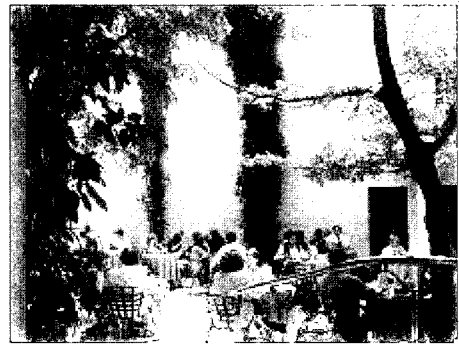


사진 3. MORGAN LIBRARY, NEWYORK, USA.

① 장식적 효과

식물고유의 형태와 색채 등의 미적효과와 식물의 다양한 식재 구성 등을 통하여 장식적 효과를 가진다. 이러한 실내공간의 질적 향상을 통하여 실내정원은 건축물의 경직성을 완화하고 시각적 안정감을 제공한다.

② 건축적 효과

식물의 배치 및 식재를 통하여 공간의 분할과 동선을 유도하며 시각적 차폐 등의 기능을 건축 재료를 대신하여 수행한다. 또한 창문을 통하여 들어오는 빛을 부분적으로 차폐함으로써 심광조절의 기능을 하는 건축적 효과를 갖는다.

③ 환경적 효과

실내에 식물을 도입함으로써 건조한 실내에 공중습도를 제공하며 습도에 따른 온도 조절의 역할을 수행한다. 또한 살아있는 식물의 호흡작용은 유해 휘발성 가스의 흡착 및 흡수하고 부유먼지를 제거하여 공기를 정화하며 그밖에 소음경감과 외기 바람의 풍향 및 풍속을 조절한다.

이러한 식물의 환경적 효과는 실내공간에 도입한 식물의 수량과 비례하여 많이 도입할수록 그 효과가 크다.

④ 여가활용 효과

실내정원공간은 휴식의 장소로서 활용되어 심리적 안정감을 주며 개인공간에서는 식물을 식재하고 관리하면서 취미활동과 여가 선용의 장소가 된다.

⑤ 교육적 효과

생활 공간 주변에 식물을 가까이함으로써 자연과 환경, 식물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며 일부 식물의 향기 등은 집중력을 높임으로서 학습효과를 증진시킨다.

⑥ 치료적 효과

실내공간에 식물을 도입하는 것만으로도 심리적 긴장감을 완화시키고 안정감을 도모하여 정신건강에 유익하다. 특히 실외활동에 제약이 있는 환자나 정신질환자 등에게 실내에서 식물을 보고 만지며 소품 등을 제작함으로써 치료에 도움을 주는 효과가 있다.

⑦ 경영적 효과

식물을 이용한 환경마케팅을 통하여 회사의 이미지를 높이고 수익성을 증가 시킨다. 이는 이미 여러 업체에서 실시중이며 매장 등에서도 소비자의 구매심리를 촉진시키거나 매장의 인지도를 높이기 위하여 실내정원이 도입되고 있다.

■ 실내정원 시장

국내 실내정원 시장은 생활 및 문화 수준의 향상에 따른 생활환경의 질 개선에대한 노력 및 관심이 높아지면서 지속적인 수요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1990년대 이전에는 서울, 경기지역을 중심으로 한 대도시의 몇몇 실내정원전문업체를 중심으로 한정적으로 실내정원 및 화분배치 형태로 조성되다가 아파트 보급

이 확산되고 소비형태가 달라지면서 모델하우스, 베란다 공간 등의 주거공간과 커피숍, 식당, 스포츠 센터, 대형마켓, 백화점 등 각종 서비스 및 상업공간 및 지하철역, 대합실, 공항, 고속도로 휴게소 및 화장실 등의 교통공간에서는 이용자들의 밀집에 따른 혼잡도를 낮추고 쾌적성을 높이고자 이용자들을 위한 서비스 차원에서 실내정원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수요가 점차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사진 4. KAGIMA BUIL. TOKYO, JAPAN



사진 5. 도시개발공사 사옥

이에 따라 실내정원업을 담당하는 계층도 실내정원전문 업체뿐만 아니라 꽃가게, 꽃재배농장, 관련전공자 등(조경학과, 원예학과, 실내디자인학과, 건축학과 등) 다양한 형태로 수요 및 공급이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으며 참여분야도 확산되고 있다.

■ 가정에서의 실내정원 장식방법

가정에서 간단하게 식물을 이용하여 실내정원을 장식하는 방법은 테라리움(Terrarium), 물재배(Hydro culture), 접시정원(Dish Garden), 용기정원(Miniature Garden), 공중화단(Hanging Basket), 창문화단(Window Garden), 드라이 플라워(Dried Flower), 분재(Bonsai), 꽃꽂이, 압화(Press Flower) 등 다양한 방법이 있다. 이들 중에서 테라리움(Terrarium)에 대한 이해와 만드는 과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테라리움(Terrarium)

테라리움은 1836년 영국의 내과 의사인 나사니엘 백쇼 워드(Nathaniel Bagshaw Ward)박사가 흙이 담겨진 유리 용기 속에서 나방의 번데기가 부화하는 생장 과정을 관찰하는 과정에서 우연히 양치식물의 싹이 나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다. 이렇게 해서 처음 만들어진 빅토리아풍의 와디언 케이스는 장식적일 뿐 아니라 먼 항해로부터 식물을 운반할 수 있는 실용적인 면도 있어 이국적인 식물을 도입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으며, 오늘날 테라리움의 모태가 되어 세계 각국으로 전파되었다. 테라리움은 생활용품을 이용해 손쉽게 만들 수 있으며 실내에서 작은 정원을 보는 듯한 느낌을 주기 때문에 자연을 접하기 힘든 도시인에게 실내조경을 접할 수 있는 방법이라 하겠다.

테라리움의 적합한 장소는 직사광선이 내리쬐는 곳보다 얇은 커튼을 통해 들어오는 광선이나 북쪽 창문에서 들어오는 곳이 좋다. 직사광선은 용기내의 온도를 높여 식물이 쉽게 시들게 하며 또한 열이 있는 곳도 피하는 것이 좋다.

테라리움은 외부환경에 노출이 되지 않기 때문에 물주는 횟수가 낮으며 일반적으로 여름에는 한달에 2번, 겨울에는 한달에 1번 정도 관수한다. 또한, 물주는 시기는 흙의 표면이 2-3cm정도 말라 있을 경우 준다. 사용할 물은 실온과 비슷하게 맞추어 주는 것이 좋으며 분무기를 이용하는 것이 좋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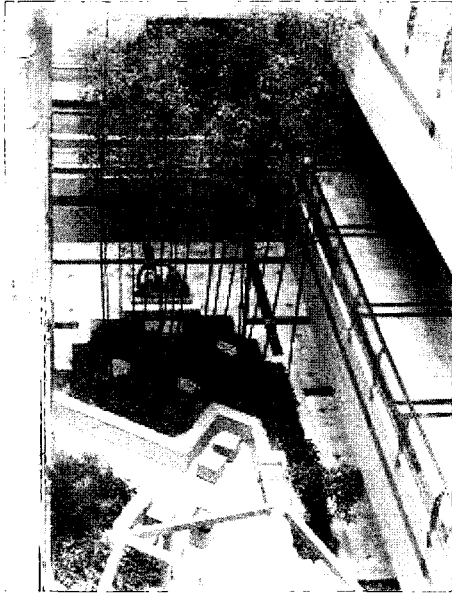


사진 6. 담배인삼공사(코스모타워) 휴게공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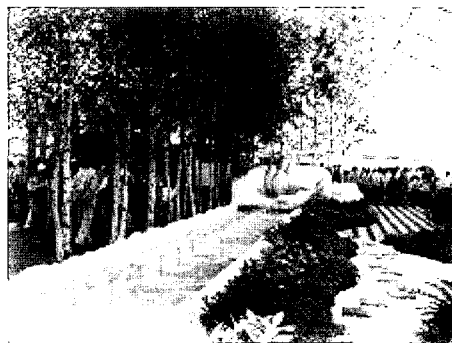


사진 7. 안면도 꽃박람회 주제관

<만드는 방법>

- ① 배수층, 목탄층, 배합토 순으로 용기의 약 1/4의 공간을 토양으로 채운다.
- ② 용기가 크다면 토양의 높이를 다르게 하거나 경사지를 만들어 흥미를 더해 줄 수 있다.
- ③ 심을 식물을 분에서 빼내어 뿌리흙을 잘 털고 너무 긴 뿌리는 적당히 자른다.
- ④ 배식을 어떻게 할지 구상하고 주가 되는 식물과 주변의 식물을 선택한다.
- ⑤ 식물을 심기 쉽도록 흙에 심을 구멍을 낸다.
- ⑥ 큰 식물부터 작은 식물 순으로 용기에 넣고 구멍 뿌리부분은 구멍주변의 흙을 덮어서 식물을 안정시킨다.
- ⑦ 다 심은 후 흙을 다져서 식물을 정착시킨 후 병 내벽에 물이 흐르도록 물뿌리개로 물을 주되 과다하지 않도록 조심한다.
- ⑧ 분무기로 병쪽을 향하여 뿌린 다음 화장지나 솜으로 내벽을 깨끗이 닦아낸다. 조개껍질, 작은 솔방울, 옥돌과 같이 크기가 작은 침경물을 이용하여 특색 있는 분위기를 연출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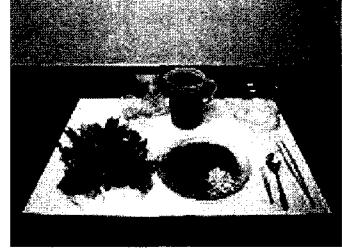


사진 8. 테라리움 준비재료



사진 9. 완성된 테라리움